

선어록 해제 42 한국선과 선어록 13

선문강요집(禪門綱要集)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2>

당당하게 부처길 가라

학승이 물었다.
“대가섭의 가사(寫)는 (더 이상) 조계(曹溪)의 길을 밟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그것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허공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아. 도인은 도무지 모를 뿐이야.”

問 迦葉上行衣不踏曹溪路 什麼人得披
師云 虛空不出世 道人都不知

부처님이 입던 가사는 제자 가섭이 물려받은 후 대대로 제자에게 물려주는 관습이 있었다. 그런데 중국의 육조혜능 스님 이후로는 가사를 전하는 관습이 없어졌다. 육조혜능 스님이 오조홍인 스님에게 가사를 전해 받은 후 시기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의해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에게 가사를 전하지 않은 것이다.

허공은 빈 것이다. 영월히 세상에 그 존재를 나타내지 않는다. 아무리 존귀한 부처님의 가사라고 해도 이미 닳아서 없어졌다. 없어진 물건이 어찌 다시 나타나겠는가. 그럴 일은 없다. 그러하니 그 가사를 누가 입을 것인지 도인이라고 해도 모른다.

그런데 설사 누가 부처님의 가사를 입고 있다 한들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는가. 그것은 이미 지나간 석가여래불의 가사이다. 그대는 이미 그대 자신불(自身佛)의 가사를 입고 있다. 그러하니 남의 가사에 신경을 끄고 그대 자신의 가사를 입고 당당하게 부처의 길을 가라.

학승이 물었다.
“어떤 것이 변잡하나 잡스럽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채식을 하면서 항상 재계(齋戒)한다.”
학승이 말했다.
“그러한 일로부터 초연해 질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재계를 파하는 것이야.”

問 如何是混而不雜/師云 老僧素食長齋/云還得
超然也無/師云 破齋也

재계 파하면 처음엔 자유로우나 시간이 갈수록 세상에 구속돼

채식을 하려면 간단하지 않다. 봄나물은 산에서 나물을 채집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말린다. 그 후 먹고 싶을 때 다시 삶아 맑은 물에 행궤서 소금과 기름, 식초를 약간 넣고 잘 볶으면 맛난 산나물이 된다. 밭에서 캐는 채소는 심고, 가꾸고, 캐고, 다듬고, 절이고, 양념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일일이 생각해 보면 꽤나 번잡하다. 그러나 이렇게 번잡해도 육식을 하지 아니하고 채식을 하는 것은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몸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다. 이것을 재계(齋戒)라 한다.

재계는 원래 옛날부터 제사나 기도를 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재계할 때는 생각을 비워야 하고 말도 조심해야 한다. 큰소리나 험한 말을 하면 안 되고, 예의에서 벗어나면 안 되며, 고성방가도 안 되고, 옷깃을 풀어헤치고 다녀도 안 되고, 신발을 끌고 다녀도 안 되고, 식사시간을 어겨도 안 된다. 꽤나 복잡한 것 같으나 이런 것이 있어야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지고 쉬게 된다. 이것은 번잡한 것 같지만 되레 잡스러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것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가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행을 무시하면 재계를 파하는 것이다. 재계를 파하면 처음에는 자유롭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세상에 구속돼 더 부자유스러워지게 된다.

학승이 물었다.
“어떤 것이 옛날 사람의 말(言)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세히 들어봐. 자세히 들어.”

問 如何是古人之言/師云 諦聽諦聽

나 같은 노인의 말이 옛날 사람의 말이다. 자, 자세히 들어봐라. 들어봐! 이런 말을 하는 이 노승의 말이 뭐 다른 것이 있더냐? 특별한 것은 없다. 설사 있다고 해도 그것은 네 스스로 눈에 공각지를 씌워서 그렇게 보는 것일 뿐이다. 특별한 것을 찾는 마음부터 쉬어라. 평범해져라. 평범해져.

무불선원 선원장

임제종·운문종 교의 기록

《선문강요집》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저술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저술 시기도 고려시대 즈음으로 추정될 뿐이다. 《한국불교전서》 제6책에 수록된 판본은 현존하는 3종 판본 가운데 1531년 개관된 지리산 철굴사 판본이다. 전제의 구성은 [삼성장(三聖章)], [이현화(二賢話)], [제이편(第二篇)], [일우설(一遇說)], [산운편(山雲篇)], [운문삼구(雲門三句)] 등으로 구성돼 있고, 말미에 발문의 성격을 지닌 글이 수록돼 있다. 본문의 [삼성장]·[이현화]·[제이편]에 등장하는 인물은 청풍장로와 호월상인의 대화형식으로 임제의 삼구에 대한 내용이고, [일우설]은 우부(愚夫)라고 자칭하는 노승에게 어떤 승이 질문하는 형식으로서 [제이편]에서처럼 [삼성장]·[이현화]에서 말하는 임제의 가르침에 대한 비평이다. 나아가서 그 우부노승은 시자를 시켜서 [삼성장]·[이현화]·[제이편]의 내용을 기록하게도 했다. [산운편]과 [운문삼구]는 운문종의 교의에 대해 논의한 것인데, 이 가운데 [산운편]은 청산을 아버지로 삼고 백운을 아들로 삼아서 운문삼구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선문강요집》은 일찍이 송대에 출현한 《인천안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후 조선 후기에 환성지안이 편찬한 《선문오종강요》로 전승되는 성격이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선문강요집》은 각 선문의 강요에 대한 부분적인 기록으로서 실제로 그 내용은 임제종·운문종의 교의에 대해서만 기록돼 있다. 이 가운데서도 임제종의 교의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곧 임제는 불(佛)은 마음이 청정한 것이고, 법(法)은 마음의 지혜광명심이며, 도(道)는 외부의 대상에 대하여 걸림이 없는 광명이라 말한다. 나아가서 이 셋은 곧 하나이고 그 성품은 공(空)이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일구에서 깨치면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 될 것이고, 제이구에서 깨치면 인간세상과 천상세계의 스승이 될 것이며, 제삼구에서 깨치면 자신의 구제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삼구는 구체적으로 표현돼 있지 않다. 다만 설명된 내용을 통해 추론하면 제일구는 위음왕불 이전의 소식으로서 본래면목의 도리이고, 제이구는 언설을 초월한 이심전심의 도리이며, 제삼구는 언전을 통해 제시된 구체적인 가르침이다.

이와 같은 삼구의 전체적인 관계성에 대해서 임제는 “일구에는 반드시 삼현문(三玄門)을 갖추고, 일현문(一玄門)에는 반드시 삼요(三要)를 갖추어 권(權)이 있고 용(用)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임제의 견해에 대해 임제종의 제5세인 수산성님은 임제의 삼구와 삼현과 삼요를 모두 동등한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선문강요집》에서는 수산성님의 평가에 대해 단지

일현을 터득했다고 해서 삼구를 모두 터득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하나에 통했다고 한다면 모든 것에 통하는 것으로 비로소 삼구를 터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되기 때문이다. 곧 부분에만 통하고 전체에 통하지 못하면 전혀 통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정법해(中精法海)는 운종삼구(蘊總三句)를 들어 삼구를 포함한 삼구의 사례를 설명했고, 또 송제해 법사도 현과 요 이외에 따로 삼구를 송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해 수산성님과 같은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호월상인과 청풍장로의 문답형식을 통한 내용의 전개에서 보면 세 가지 측면으로 전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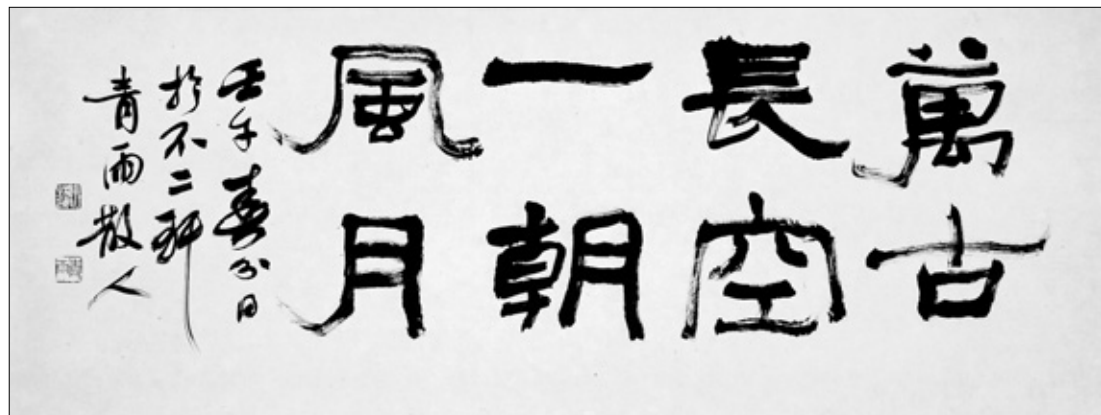
먼저 [삼성장]에서는 각범해후의 말을 인용하고 그에 대해 폄박하는 임제의 삼구야말로 모든 미혹한 자의 번뇌를 단번에 쳐부수는 금강과 같은 무기로 해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현화]에서는 삼구와 삼현과 삼요의 관계에 대해 임제의 제일구는 사조용(四照用)과 삼요(三要) 각각의 관계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각기 개별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서로 통제적인 것이라 말한다.

특히 송제해의 견해를 들어 임제의 삼구가 일구에 통하고 일구가 삼구에 통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 것은 임제가 비유한 인(人)의 사상에 대한 근원적인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인(人)이란 삼승인 내지 일승이라는 구별이 없이 모두 보편적인 인(人)으로 간주되는 임제의 인간관의 특징을 나타내 주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돼 있다.

그 다음으로 [일우설]에서는 일우가 [삼성장]은 조리가 정연하고, [이현화]는 분별이 상제하다고 비평한다. 그 가운데 제이구에 대해서 “묘회는 곧 지혜로서 실재이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어찌 무착의 물음을 응답하겠는가. 물음과 대답이 모두 갖다 들었기 때문이다. 구화는 방편이며 권이다. 이때에 어찌 흐름을 끊는 기틀을 저버리겠는가. 기틀과 감응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은 삼현을 밝힌 것이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일우가 제일구 자체를 완성체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일구·제이구·제삼구를 각각 다른 하나의 독립체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나 제일구는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완전한 총체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제이구는 일구를 설명하는 방편의 시설이며, 제삼구는 삼구만으로 자체의 법을 형성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이런 점에서 《선문강요집》에서는 임제삼구의 입장에 대해 운종삼구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저술시기 고려시대로 추정 《선문오종강요》의 성격 이어

운상민의 서화산책 10 만고장공 일조풍월(萬古長空 一朝風月)



萬:일만 만
古:예고
空:빌공
朝:아침 조

청어임종일장만
우불오월조공고
산이춘분
인현분

나는 긴 여름날을 좋아한다

선능(善能)은 남송(南宋)의 선사로서 만고장공 일조풍월에 대해 의미 깊은 주석을 달고 있다. 일조풍월에 집착해 만고장공을 망각해도 안되고 만고장공에 집착해 일조풍월을 가려서도 안된다. 더구나 어떠한 날(一朝)인가? 남들은 무더위를 싫다지만 나는 긴 여름날을 좋아한다. 훈풍은 남쪽에서 불어오고 가람 주위엔 시원한 기운이 인다.

- 오경용의 <선의 향연> 중에서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작가)



김효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곤지암 우리절

특별천일지장기도



우리 모두, 불보살님의 크나크신 가호에 흠뻑 젖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 ▶ 기도기간 : 2011년 6월 19일 ~ 2014년 3월 16일 (1002일간)
- ▶ 기도시간 : 새벽기도 04:00 ~ 07:00
사시기도 09:00 ~ 12:00
저녁기도 16:00 ~ 19:00
- ▶ 기도동참 : 백오십만원 이상 (3년간 자동이체 분납 가능)
농협 : 221043-51-030588 이진균

특별천일지장기도에 동참하시면 다음의 혜택을 드립니다
▷ 천도재를 무료로 지내드립니다. (향, 화, 축 공양은 별도)
▷ 한 가족 중 두 분, 3년간 인등을 밝혀 드립니다.

※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날 불전은 일본대지진피해 성금으로 보시합니다



우리절오층석탑(경기도문화재자료 제159호)



우리절지장보살님

우리절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일요법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삼부다라니 염송법회

■ 문의접수 : 동봉 (스님 : 031-763-4674) / 영허 (법사 : 010-5329-8477, 031-763-8477)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번지

※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리 전화주시면 우리절 ~ 곤지암터미널 구간을 언제든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락처 영허법사.